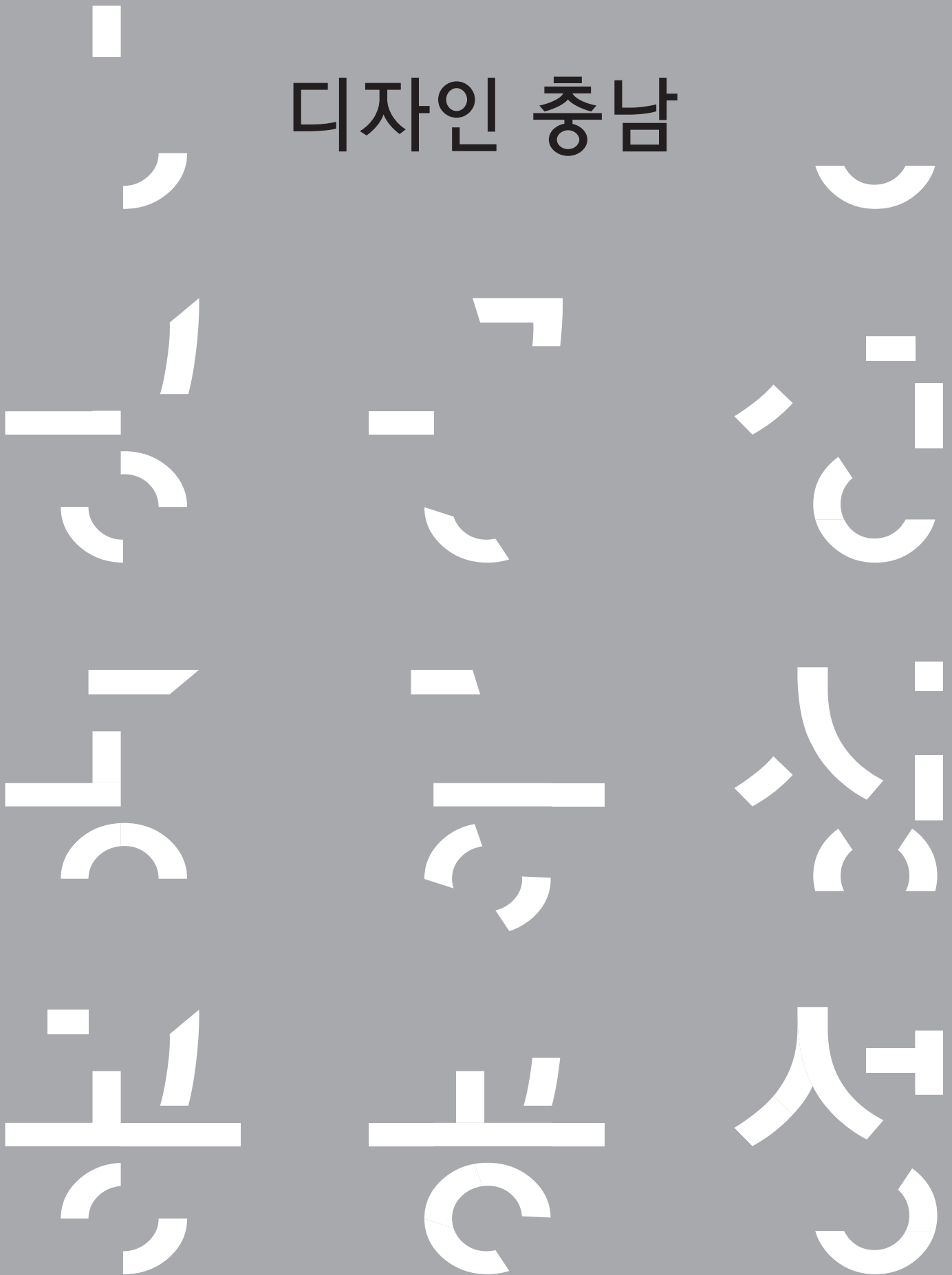


# 디자인 충남



발행일	2016년 9월 30일
발행인	강현수
기획 및 편집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주관 발행처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발행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전화번호	041-840-1123
홈페이지	www.cpdc.re.rk
주최 및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협력기관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1. 디자인 Column	수요자 중심의 공공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
02. 디자인 Review	공공성
Article 1	• 시민이 디자인하면 더 훌륭해진다는 경청으로 상호신뢰를 디자인 하는 '놀라운 경기도청'의 중요한 듣고 말하고 결정하는 공공
Article 2	• 문화도시와 공공 공공 디자인에 문화와 예술
03. 디자인 Level Up	컨설팅
	보령시 관광과 부여군 재무과 논산시 관광체육과 충청남도 전국체전준비단
04. 디자인 Focus	

# Contents

황진찬 팀장 / 02	
공공적 경험 / 조주연 대표 / 06	
'시민청'	
질문들	
적 축제	
디자인 / 안진근 교수 / 12	
문화를 접목시킨 '나오시마'	
의 도시 '빌바오'	
팅 사례 / 20	
보령시 머드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부여군청 청사 내 조경디자인	
논산시 탐정호반 노을물빛 경관조성사업	
2016 전국체전 충청남도선수단 유니폼 디자인	
센터 정책연구 / 3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05. 디자인 Team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 임종구 주무관 / 42
홍성군 도시건축과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맞춤형 복지 실현
06. 국내 정책 · 제도 동향	정책 · 제도 동향 / 44
중앙부처	건축 및 도시
	경관 및 공공공간
	마을 만들기
	공공시설물 및 매체
충청남도 및 15개 시 · 군	건축 및 도시
	경관 및 공공공간
	마을만들기
	공공시설물 및 매체



# 수요자 중심의 공공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장\_황진찬



“디자인은 혁신이다”, “디자인은 기획이다”, “디자인은 미래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는다. 이런 정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누가 부여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디자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상하고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에서 저마다 디자인을 모토로 내세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 나는 항상 궁금증을 느낀다.

우리 충청남도 디자인 분야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디자인 정책”에서는 조례·조직·교육들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 경영활동”으로서는 디자인 공모사업·디자인 센터 운영·디자인 행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자인 경영

성과”에서는 정책협약 체결·주민 참여성·디자인 컨설팅·포상 수상 등으로 정리된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군에서의 디자인 영역은 단일 사업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도 차원의 디자인 영역은 보다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디자인 분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정주환경 개선이나 3농 혁신, 경제비전 2030 등과 도시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문화성, 지역성, 역사성이 포함된 도시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겠다.

또한 공공건축물 신축시에 “사전검토제” 등은 매우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그 질은 상향 조정될 것이고 그것은 고부가치적인 사회현상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 하겠다.

디자인 정책 (조례/조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조례 및 시행규칙,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경관조례, 디자인 컨설팅 운영규정, 광고물 조례</li> <li>■ 15개 시·군 디자인 조직 구축 지원</li> <li>■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등</li> </ul>
디자인 경영활동 (사업/공모/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확대 운영</li> <li>■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개편 운영</li> <li>■ 서해안 경관디자인 사업</li> <li>■ 공공디자인 대상전 개최</li> </ul>
디자인 경영 성과 (협약/주민참여/컨설팅/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 15개 시장 군수 간 공공디자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 협약 체결</li> <li>■ 디자인지원 후속 조치로 마을 협동조합 설립, 나누미 지역아동센터 유치</li> <li>■ 공공디자인센터 업무 개편 운영(15개 시·군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연구 실적)</li> <li>■ 범죄예방 디자인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li> <li>■ 옥외광고업무(대통령상) 등 8개 상 수상</li> </ul>



사진 1



사진 2

▶ 사업추진 결과(사진 1, 2, 3, 4)

최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에 제정되었고, 시행령도 2016년 8월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디자인 분야의 영역은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범정부적인 디자인 흐름과 더불어 충청남도에서도 시·군간의 디자인협력체계 강화와 디자인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디자인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사진 3



사진 4

# DESIGN REVIEW

: 공공성

시민이 디자인하면 더 훌륭해진다는 공공적 경험 · 조주연 대표 06

- 경청으로 상호신뢰를 디자인하는 '시민청'
- '놀라운 경기도청'의 중요한 질문들
- 듣고 말하고 결정하는 공공적 축제

문화도시와 공공디자인 · 안진근 교수 12

- 공공디자인에 문화를 접목시킨 '나오시마'
- 문화와 예술의 도시 '빌바오'



# 시민이 디자인하면 더 훌륭해진다는 공공적 경험

사회적기업 티팟 대표\_조주연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주인이라고 외친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아이디어를 내라 하고, 참여하라고 하고, 이렇게 적용했노라 언론에 홍보한다. 그런데 무엇이 시민의 뜻대로 바뀌었는지,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담은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뿐인 구호에 지쳐 있고, 참여하라는 공적 메시지에 둔감해져 있다. 열린 정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두터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지금, 불신의 벽은 더 큰 각자의 사회적 고립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정치인과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선거를 잘해야 돼'라는 후회 속에서 다음 기회, 그리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대책 없이 오늘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한 걸까?

▶ 서울광장과 시민청을 연결하는 경청상징 조형물



많은 사람이 한국 사회의 불신과 불통이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돌파할 새로운 대안을 정책적으로 요구한다. 수많은 민관위원회와 시민참여 거버넌스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시도들은 기존 행정의 틀 속에서 제한적 거버넌스를 시도할 뿐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홍보할 만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지는 못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포장된 성과보다 모두를 위해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면, 과거와 다른 가능성을 만날 수도 있다는 '공공적 경험'이 절실하다. 이는 참여하는 과정에 중심을 둔다면 결과도 더 훌륭해진다는 경험과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걱정의 시간을 보냈던 두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 경청으로 상호신뢰를 디자인하는 '시민청'

2012년 이른 봄, 문제가 있는 공공장소를 바꿔내는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서울시 신청사의 시티갤러리가 바로 그 장소다. 고민이 앞선다. 가능할까? 될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민이 성숙했다고, 거대한 공공공간의 정체성을 채 1년이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스스로 가능성에 대한 설득 논리로 자신을 회유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사회-지역-마을-가족, 그리고 나 자신까지 포섭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의미다.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는 더 많은 연대를 만들지만, 패배한 대다수는 완전히 고립된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립은 더 큰 사회적 단절을 일으킨다.

한국 사회가 지금, 그토록 소통 부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몇몇 중요한 리더가 일시적으로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즉 신자유주의가 전체 사회를 불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공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이 가치를 현실화 할 수 있을까? 다양한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에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과 실천을 병행하고 있다는데, 무엇이 대안인가? 실마리를 찾았나? 속 시원한 대안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시티갤러리는 이 가치에 대한 실천의 가능성을 실험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의 장소라는 생각을 좇아 가본다.

그럼 이 문제의 공간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 기존 계획의 목표도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디자인 서울을 통해 발전된 서울의 눈부신 변화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한다. 시민은 자부심으로 관광객은 놀라움으로 이 공간에 매료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시민의 무엇을 위한다는 것인가? 무료한 일상에 대한 환상적인 자극제, 아니면 외국인들이 찾아드는 국제적인 명소로서의 자부심을 선사한다는 것일까? 그레 봐야 기존 계획 속의 시민은 아직도 관의 처분만 바라보는 그 시민이고, 수동적 대상일 뿐이다. 이 공간이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 주체적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가 되기를 꿈을 꾸고 되는 것일까? 그 시민이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서 실패한 존재든 아니든, 기존 계획을 거만하게 무시한 그 시민들의 주체성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걸까? 그것의 실마리를 소통하기에서 시작하고, 서로의 연대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삶의 내용적 변화를 조금씩 가져오게 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그 소통이 그저 그런 소통으로 출발해서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소통의



방식과 태도가 출발부터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소의 키워드는 소통의 첫 단추를 다르게 끼우는 ‘경청’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울의 공공성을 가능할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그 장소, 그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의 주체성, 공동체의 복리, 의사소통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시민들이 서로에게 질문하자. 의제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 공감하자. 시민청의 그 공간은 여타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이나 친절한 공공서비스 공간, 또는 유용한 지식공유 공간이 아니다. 공공과 인간의 관계, 즉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아 온 관계, 바로 그것을 재설정하는 공간이다. 이것은 말로 불가능하고 경험만이 그 해답이다. 처음엔 공간이 이를 갈망하는 주체적 시민을 모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민과 함께 변화해 갈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정화 된 공간은 덜 필요하고, 공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또한 이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주체와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청은 시민의 필요와 함께 늘 변화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2013년 1월 12일 시민청이 오픈되었다.

## ‘놀라운 경기도청’의 중요한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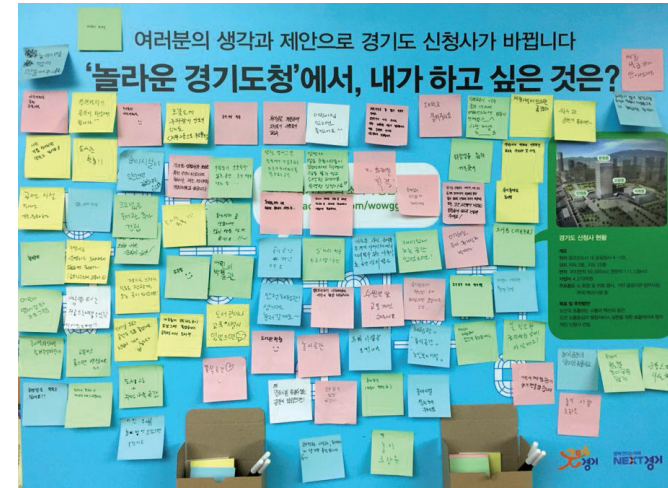
2014년 7월, 경기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신청사 건립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를 과거의 관 주도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도청을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과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의 대답은 단순했다.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그렇게 소통하면 된다.’ 이 ‘놀라운 경기도청’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 서기로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공서는 어떤 곳인가? 현재 관공서의 모습에 우리는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공식 명칭은 도청이지만, 여권 발급이나 필요한 행정업무를 위해서만 방문하는 도청이 아닌 다른 쓸모 있는 기능이 있어서 시민들이 때때로 ‘찾아갈 만한 곳’이 된다면 어떨까? 공무원들의 공간과 시민들의 공간이 함께 있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실험할 수 있다면, 더는 도청이 아닌 것일까? 민간과 공공이 무슨 일이 있어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느슨한 플랫폼으로서 도청이 기능을 할 수는 없을까? 엄청나게 어려울 것도 같지만,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모인다면 가능할 것도 같지 않은가? 지난해 ‘서울시 시민청’을 기획한 경험과 후회를 동시에 안고, 진일보한 ‘경기도 신청사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시동을 걸어본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도청은 ‘도청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그것이 대규모 공공공간일 때 이런 생각은 더 확고해진다. 인식과 이를 당연시하는 제도와 행정적 절차가 이 프로젝트 최대의 적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관공서들은 건물 설계자 중심으로 건물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사용할 쓰임과 주체들의 욕구를 건물에 맞추도록 요구한다. 이런 추진 방식에서 시민들의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은 과거의 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뒤늦게 이에 대해 공격을 받게 되면 허겁지겁 시민을 위한 공간을 억지로 내어준다. 대민 공간이라는 행정용어와 함께 민원실, 공연장, 전시장, 편의시설 등이 바로 이것의 증거이다.

우리는 사용할 주체인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도청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묻고 함께 기획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민과 관이 함께 불신의 벽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경과적 신뢰를 성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정이 투명하고, 함께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관행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 듣고 말하고 결정하는 공공적 축제

한겨울이지만, 시작은 현장에서 듣는 것이 최고다. 경기도 31개 시·군청 로비와 민원 공간에 포스트잇 게시판을 만들고, 시민들이 많은 곳에 직접 나가 현장 설문 조사를 했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의견을 들었고, 신청사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었다. 또 경기지역 20곳에서 자발적 소규모 토론회인 ‘오픈 테이블’이 열리도록 지원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마다 벽 1평씩이라도 나눠줘서 시민들끼리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즐겁게 행정 업무를 보고, 도청 직원과 친해지고 싶어요.”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배치된 포스트잇 게시판

시민들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다양한 주체가 함께 연결되는 소통의 앞마당’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기세를 몰아 내친김에 함께 기획해 보자고 했다. ‘소셜픽션 미래의 도청사’라는 제목으로 참여 워크숍을 열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20년 뒤 도청사를 마음껏 상상하며, 경기도 신청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경기도청의 새로운 이름으로 ‘경기, 장’이 제안되었다. 도청 앞 넓은 경기장에서 31개 시·군민이 모여 다양한 경기를 펼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였다. 한편 문화, 시민, 행정, 건축, 디자인, 공간, 사회적 경제 등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지어질 경기도 신청사 공간의 정체성과 쓰임새, 공간디자인에 대해 세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기획을 정리해 보면 결국, 미래의 도청에서 행정 / 민간 / 의회 세 주체가 협치를 경험할 수 있는 도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20년 후 미래의 도청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소셜픽션 워크숍

지금까지 진행된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도청의 쓰임새를 확정하는 시민의 선택이 남았다. 그 전에 내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경기도의 중요 결정권자들과 시민들이 기획한 도청의 모습을 협의하는 것이다. 설 연휴 전후에 세 차례의 중간보고를 진행했고, 예상대로 순조롭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관행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경기도가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가지고 몇 차례 일정을 변경했던 ‘놀라운 경기도청 창 의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새롭게 변화될 경기도 신청사의 모습과 쓰임새에 대해 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최종 결정을 시민이 하는 참여 토론 형태의 공청회다. 오픈 테이블과 소셜픽션의 결과를 반영해서 변화된 경기도 신청사의 새로운 공간디자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존 공간디자인과의 차이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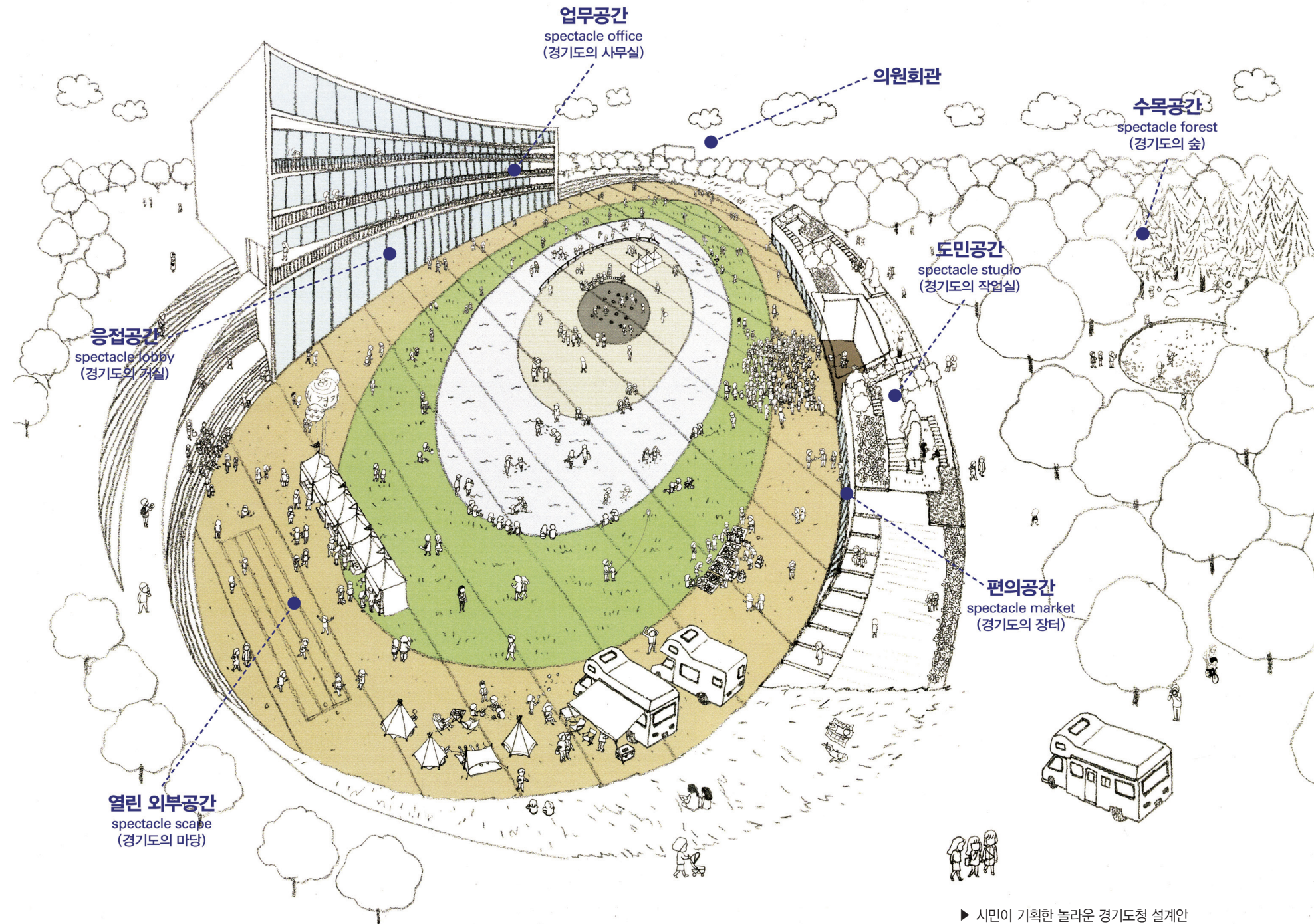


▶ 경기도 신청사 기존 설계안

새로운 안은 적극적 소통 공간이 될 넓은 바깥 광장을 가지고 있고, 도청의 권위적인 높이는 확실하게 낮췄다. 또한, 시민이 이용할 프로그램과 공간이 확대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도 미래의 업무환경에 맞도록 스마트 오피스가 적용됐다. 의회 또한 경기장의 열린 주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넓은 공유 광장과 마주한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신청사 설계안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연결된다고 체감하는 작은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적 경험'이다. 우리가 느끼는 협치는 거대한 정치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4천여 명이 '놀라운 경기도청 마스터플랜'에 참여해 경기도청에 대한 즐거운 상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 완공되려면 앞으로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쌓아온 민과 관의 신뢰를 덧붙여 나가는 과정으로 이 시간을 써야 한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협치를 연습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공공디자인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디자인의 기반 문화가 없어서, 또는 그런 경험을 소유한 디자이너와 정책가가 없어서, 또는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부족해서 등을 이야기한다. 나는 그 원인을 공공과 인간의 불신에서 찾는다. 상호 신뢰가 없는 공공 또는 공동체 디자인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예산과 행정조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만 남는 공공시설 디자인뿐이다. 공공디자인이 제대로 이 척박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너무 쉽다.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함께 운영하면 된다. 이것이 공공성을 위한 디자인이다.



▶ 시민이 기획한 놀라운 경기도청 설계안

조주연

경기도 여주에서 나고 자랐다. 디자인을 공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돋아 내는 문화기획과 사회혁신 디자인을 하고 있다. <디자인교육 새아>를 발행한 '간텍스트'를 설립했고, 현재 서울시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겸임교수, 사회적기업 티택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문화도시와 공공디자인

(사)충남공공디자인협회 회장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교수\_안진근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또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문화는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우리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문화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다양한 문화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정지표의 중요한 과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민선 6기에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실로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가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서산의 해미읍성은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충남지역은 지리적으로 내포 문화권과 금강 문화권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찬란한 백제문화가 스며있는 곳으로, 기호유교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역사유적지구에 등재된 공주의 '공산성'입니다.

## ▶ 공주 공산성



문화도시에 대해 정의를 하자면 문화도시(文化都市)는 사회적인 전달 개념으로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말합니다. 즉 문화도시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삶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이며 문화도시로서의 기반과 이미지를 갖춘 도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반영한 문화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의 전통문화가 파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들조차 문화도시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 논산 돈암서원



충청남도의 많은 시·군도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폐가나 폐도로, 폐광 등의 낙후된 지역 환경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도시와 공공디자인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도시의 공간과 자연경관에 디자인을 입힘으로써 도시의 격을 높이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은 충청지역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논산의 '돈암서원'입니다.





▶ 내포신도시

공공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에 공통의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가 개입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과 역할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공간과 시설, 정보 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과 대상의 디자인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3년 4월에 도청 이전을 통해 80년간의 대전 생활을 마감하고 대전과 세종, 세종과 내포를 연결하는 광역 행정 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포 시대를 개막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충남의 많은 관공서를 포함한 기관과 학교, 상업시설들이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도 다른 신도시처럼 조성 과정에서부터 공공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내포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아 공공공간이나 가로시설물 등에 적용하여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건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광역 행정 도시로서 역할을 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원이나 광장,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의 도시 기반사업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학교와 병원, 또한 복지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도시의 이상은 끊임없이 유동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삶의 총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문화'를 접목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시대의 흐름과 동시대적으로 대응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성을 내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도시정책에서 처음 출현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유럽 공업 도시에서 광산이나 제조업 등 1, 2차 산업이 쇠퇴하자 경제·사회적 위기에 몰린 도시들이 도시재생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최근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획 중의 하나인 공공디자인을 새로운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 방안으로 도입하는 국가나 도시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 중에 충청남도와 정주 여건이 비슷한 도시인 일본의 '나오시마'와 스페인의 '빌바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쿠사마 야요이와 니키 드 생팔의 조형작품

## 공공디자인에 문화를 접목시킨 '나오시마'

일본의 카가와현에 위치한 나오시마 섬은 1917년 미츠비시가 중공업 단지를 건설한 후 70여 년간 구리 제련소를 운영하였던 일본 산업화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폐기물 등으로 결국에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섬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출판, 교육기업인 베네세 그룹 후쿠타케 재단의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나오시마 섬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베네세 그룹의 자금력과 후쿠타케 소이치 회장의 열정, 섬 공무원, 마을 주민, 예술가, 건축가 등이 모두 힘을 합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나오시마 섬 전경







▶ 단순하지만 가독성이 뛰어난 사인물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를 비롯해 쿠사마 야요이, 니키 드 생팔 등 많은 예술가가 후쿠타케 회장의 열정에 이끌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베네세 하우스, 지중미술관과 섬 곳곳에 자리 잡은 현대미술 작품 등은 쇠락한 섬을 현대미술과 건축의 성지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오래된 민가를 현대미술로 재생하는 '집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마을 단위 주민단체의 활동이나 역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거의 관광객이 없었던 섬에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당진에서 서천까지 수려한 해안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에 많은 섬이 있습니다. 또한, 섬마다 고유한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일본의 나오시마 섬이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도시를 만들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기반 시설 구축과 함께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정책과 이벤트, 프로그램 등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그 지역주민의 삶이 문화가 되어야 진정한 문화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나오시마 섬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문화도시의 긍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이우환 미술관'으로 설계자 안도 타다오의 건축철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 전체 공간에서 수평의 구조는 지성적이고, 수직의 구조는 영적이라는 안도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오시마 섬의 성과로 인해 문화예술 사업들이 인근 섬들로 퍼졌습니다. 산업폐기물 투기 사건이 발생했던 테시마 섬,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섬이었던 오시마 섬 등이 '아트하우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주변 섬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2010년 세토나이카이 해상 섬들이 참여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로 인해 관광객의 급증으로, 이 지역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예술제는 첫 회에 약 94만명이 방문하였고, 올해에 개최되는 예술제에는 약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우환 미술관



▶ 빌바오시 전경

문화와 예술의 도시 ‘빌바오’

스페인 북부에 있는 철강 산업의 중심인 빌바오시는 1980년대 후반 산업 위기 등으로 도시 침체를 맞은 다른 산업도시 사례들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결국, 빌바오시는 그 원인을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온 '도시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산업도시 빌바오'의 도시재생 방안으로 '탈산업화'를 시도했습니다. 탈산업화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목표로 한 '메트로폴리탄 빌바오 계획'을 1995년에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메트로폴리탄 빌바오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빌바오시는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의 시작으로 문화와 예술 관련 부문을 활성화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와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지하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빌바오 국제공항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세계적인 건축물을 유치하면서 문화도시 재생의 모범사례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지하철역사 입구



▶ 빌바오시의 지상철

구겐하임 미술관은 1991년 설계를 시작으로 1997년 건축물이 완공되자마자 해체주의 건축물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미술관의 내·외부 디자인과 그 건설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건축적 언어를 명확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강에서 본 건물은 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마치 항구 도시에 정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티타늄과 돌로 덮여 있는 외관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강한 시각성과 인식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시는 지하철 건설을 통해 직선적인 도시 형태의 교통망 연결을 원하게 하여 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설계를 담당하였으며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철과 유리,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입구는 건축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포스테리토스(Fosteritos)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 지하철로 인해 빌바오시는 지역 교통망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된 지상철인 비에라(Vieja)는 빌바오시의 역사중심지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리아강 주변에 관광명소 등을 연결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빌바오시가 문화도시로서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 공유와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 재활성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공공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일관되고 수준 높은 통합 디자인을 통해 도시계획에서부터 사소한 휴지통 시설물 디자인까지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이 세계의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현재의 빌바오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나 도시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 대상이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도시의 역사, 문화, 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정체성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이며, 다양한 장르에서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은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도시’,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살이 문화가 되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강홍빈 외 7인,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 여섯 차원」, 대가  
안진근, 「문화도시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유럽국가의 도시재생사업 사례조사연구보고서」,  
한은실 외,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 DESIGN IGN LEVEL UP

: 컨설팅 사례

보령시 머드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 보령시 관광과 22

부여군청 청사 내 조경디자인 · 부여군 재무과 24

논산시 탐정호반 노을물빛 경관조성사업 · 논산시 관광체육과 26

2016 전국체전 충청남도선수단 유니폼 디자인 · 충청남도 전국체전준비단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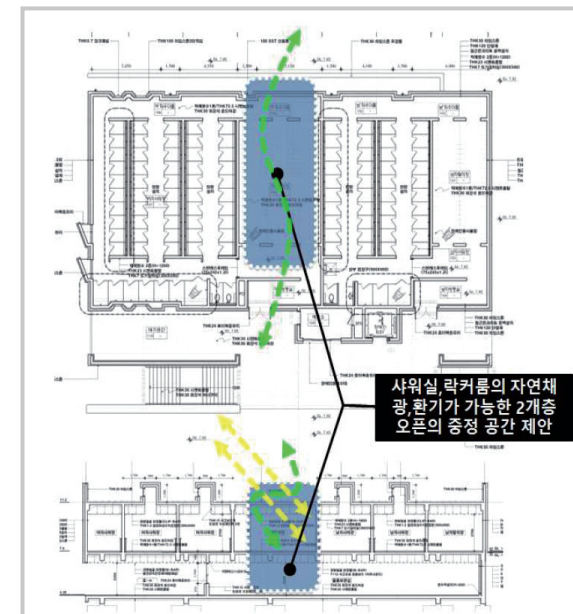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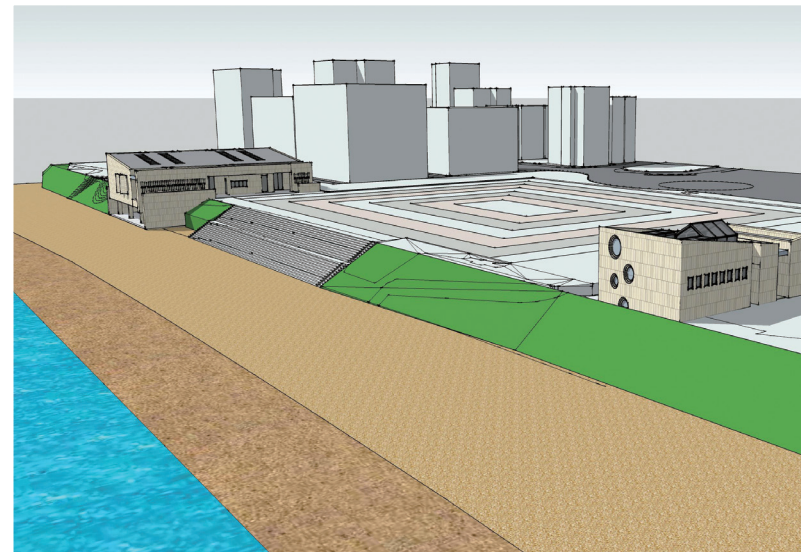
# 보령시 머드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 ▶ 사업유형 : 공공건축물
- ▶ 신청기관 : 보령시 관광과
- ▶ 자문위원 : 박상현 교수(한밭대학교), 오형석 교수(공주대학교)

##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보령시 관광과는 머드축제 기간에 사용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물품보관소 및 샤워장, 화장실 신축사업을 2017년 6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기본설계 완료 후 외부마감재료 및 입면계획 검토에 관한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공공디자인센터 내부 사전검토에서는 컨설팅 신청 사항 외에도, 평면계획 및 외부공간(광장)과의 연계가 본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자문위원 및 담당자와의 현장미팅에서 평면계획 재검토 및 외부공간과 연계계획 필요성이 설명되었고 이를 토대로 설계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 기본설계 조감도



▶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평면 개선방향



▶ 주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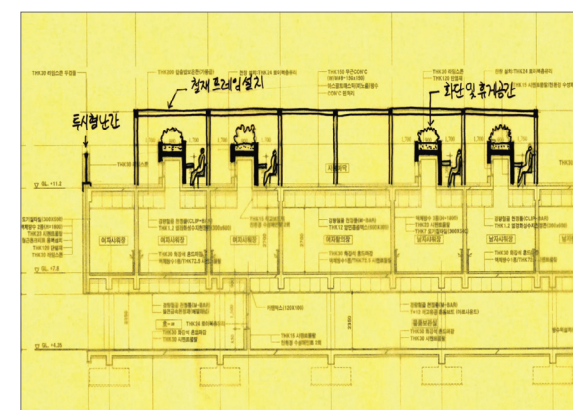
## 컨설팅 주요 내용

보령시 대천 머드광장이 갖는 공간의 특성 및 비수기 등을 고려한 건물 전면공간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건물의 중정공간, 드라이 에어리어의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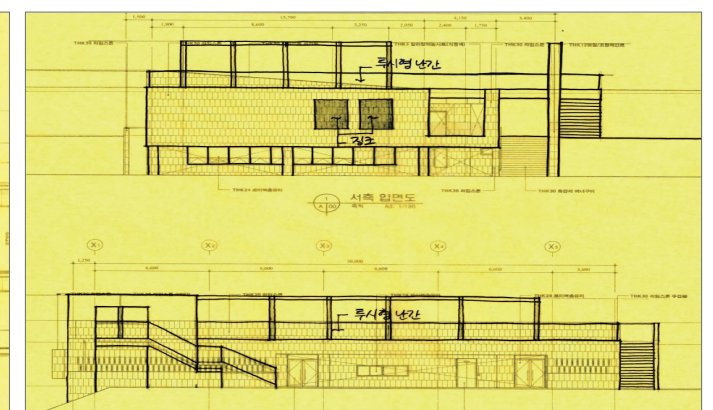
장방형의 매스와 현재의 단순한 지붕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옥상공간을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이 의견이 반영된 입면계획 수정 방향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1층 로비 공간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안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평면계획 수정안도 제시하였다.



▶ 사업대상지 현황



▶ 옥상공간 및 환기 개선방향



▶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을 위한 입면개선방향



# 부여군청 청사 내 조경디자인

- ▶ 사업유형 : 공공공간
- ▶ 신청기관 : 부여군 재무과
- ▶ 자문위원 : 김충식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혜은 전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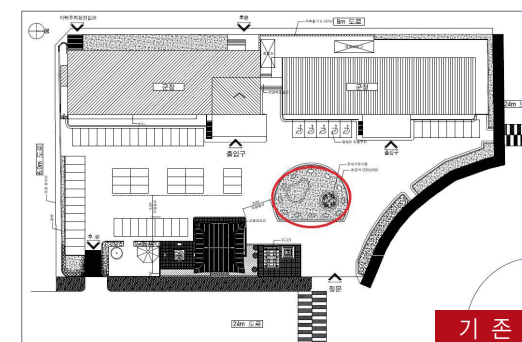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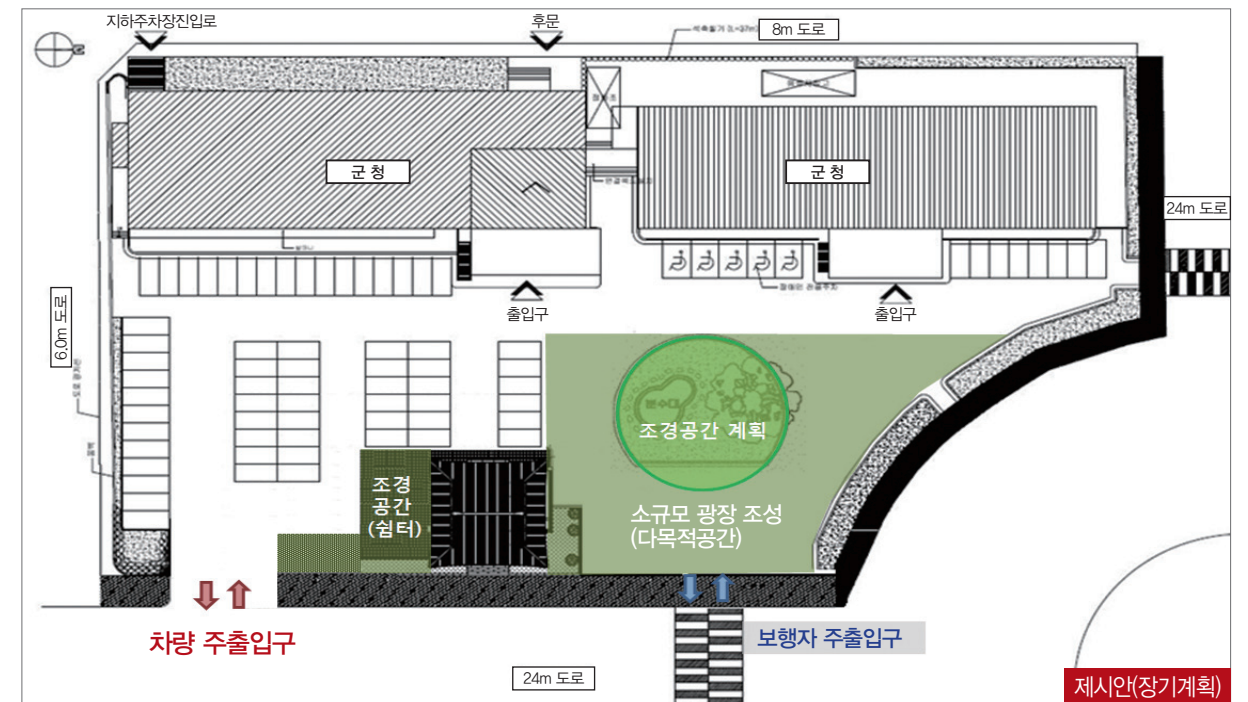
부여군청 주차장 내에 백제대종 종각이 건립되면서 기존 주차장 조경공간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 개선을 위해 조경공간 컨설팅이 신청되었다. 부여군 신청 담당과에서는 백제문화제(9월 하순) 이전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싶다고 하였다(컨설팅 신청 시점부터 약 2개월간). 우선 공공디자인센터 내부에서 컨설팅 신청 내용 및 현황을 검토한 결과, 부여군에서 의뢰한 조경공간 외에도 현재 외부공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문위원 및 담당자와 현장미팅을 통해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컨설팅 신청 담당과와의 협의에 의해 단기 계획과 장기계획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부여군청 주차장 조경 공간



▶ 백제대종 종각 및 주차 공간



## 컨설팅 주요 내용

청사 공간구성 및 조경공간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조화성, 편리성, 안전성에 착안하여 진행하였으며,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단기계획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계적 공간 개선을 통해 직원 및 주민들의 이용에 기여하도록 장기계획을 제시하였다.

단기계획은 청사 출입부에서 진입했을 때의 폐쇄감과 주변 건축물의 시야가림 문제 해결을 위해 조경공간 요소를 단순하게 변경하여 주변 건축물 시야가림 및 폐쇄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오엽송, 연못, 비석은 존치하고, 소관목 등 제거).

장기계획은 정문의 위치를 변경하여 주차공간과 보행자/주민 휴게공간을 분리시켜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청사 진입 차량의 주출입구를 화전교차로에서 이격하여 배치해줌으로써 차량 진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조경공간을 소규모 광장이면서 기능을 확대하여 직원 및 이용자의 다목적 공간인 쉼터 기능 또는 축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제공해줌으로써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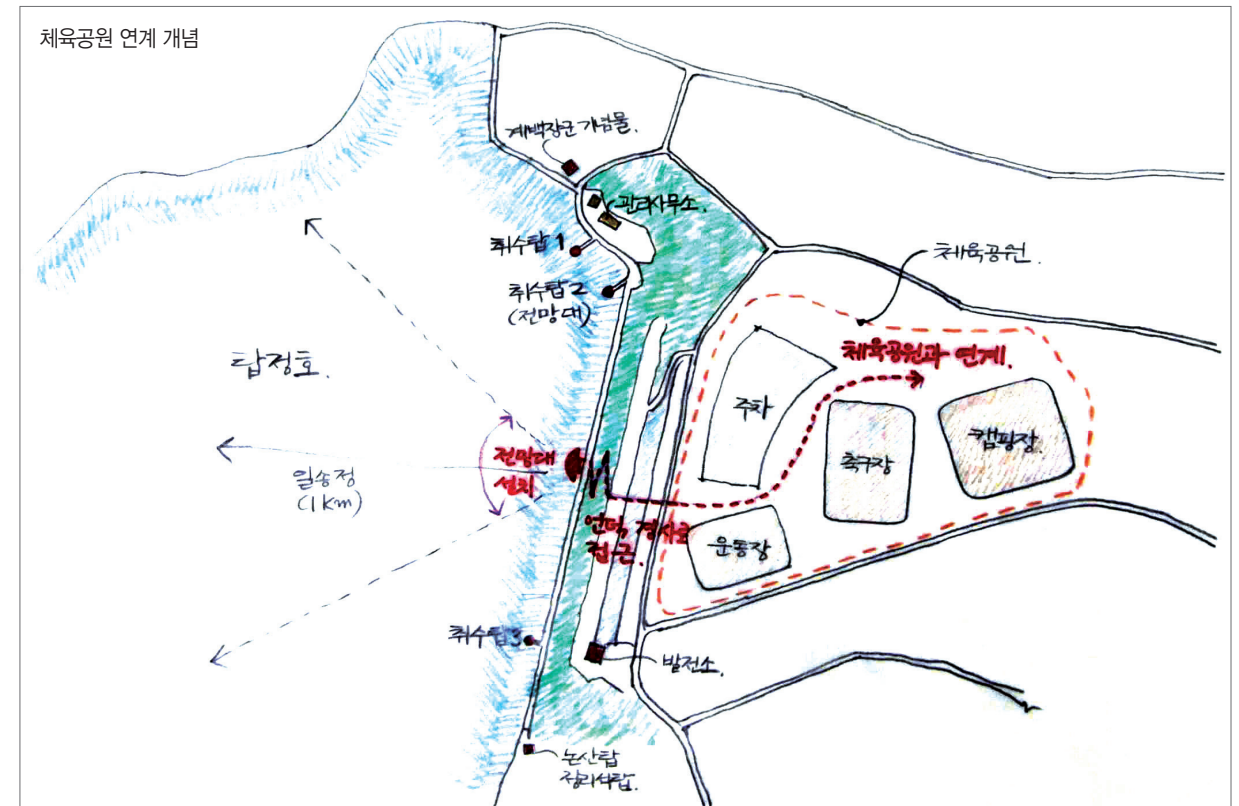
# 논산시 탐정호반 노을물빛 경관조성사업

- ▶ 사업유형: 공공시설물
- ▶ 신청기관: 논산시 관광체육과
- ▶ 자문위원: 김연준 교수(목원대학교), 이종세 교수(건양대학교)

##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탐정호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제방주변의 산책을 위한 전망 데크, 탐정호 분수, 주변시설물 그리고 제방아래의 체육공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제방의 길이는 약 570미터에 이르며 탐정리와 탐정호를 좌우로 가로지르고 있는 탐정호는 탐정교 수문 쪽으로부터 주차장, 계백장군 조형물, 농어촌공사 탐정호 관리사무소 등의 순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 ▶ 탐정호 진입부 및 제방 전경



▶ 제트분수 사례



▶ 탐정호 제방 밑 체육공원 예정부지

## 컨설팅 주요 내용

LED바 및 LED투광등의 야간경관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도 및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호수쪽으로의 돌출된 전망 데크의 규모를 확장하여 재미요소를 더하도록 하며 가로방향의 무지개분수 대신 수평적인 요소와 수직적인 요소가 되는 제트분수 설치로 여러 방향에서 조망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인근에 조성되는 체육공원에서 산책로 등을 통해 탐정호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 2016 전국체전 충청남도선수단 유니폼 디자인

- ▶ 사업유형 : 공공매체
- ▶ 신청기관 : 충청남도 전국체전준비단
- ▶ 자문위원 : 강성해 교수(상명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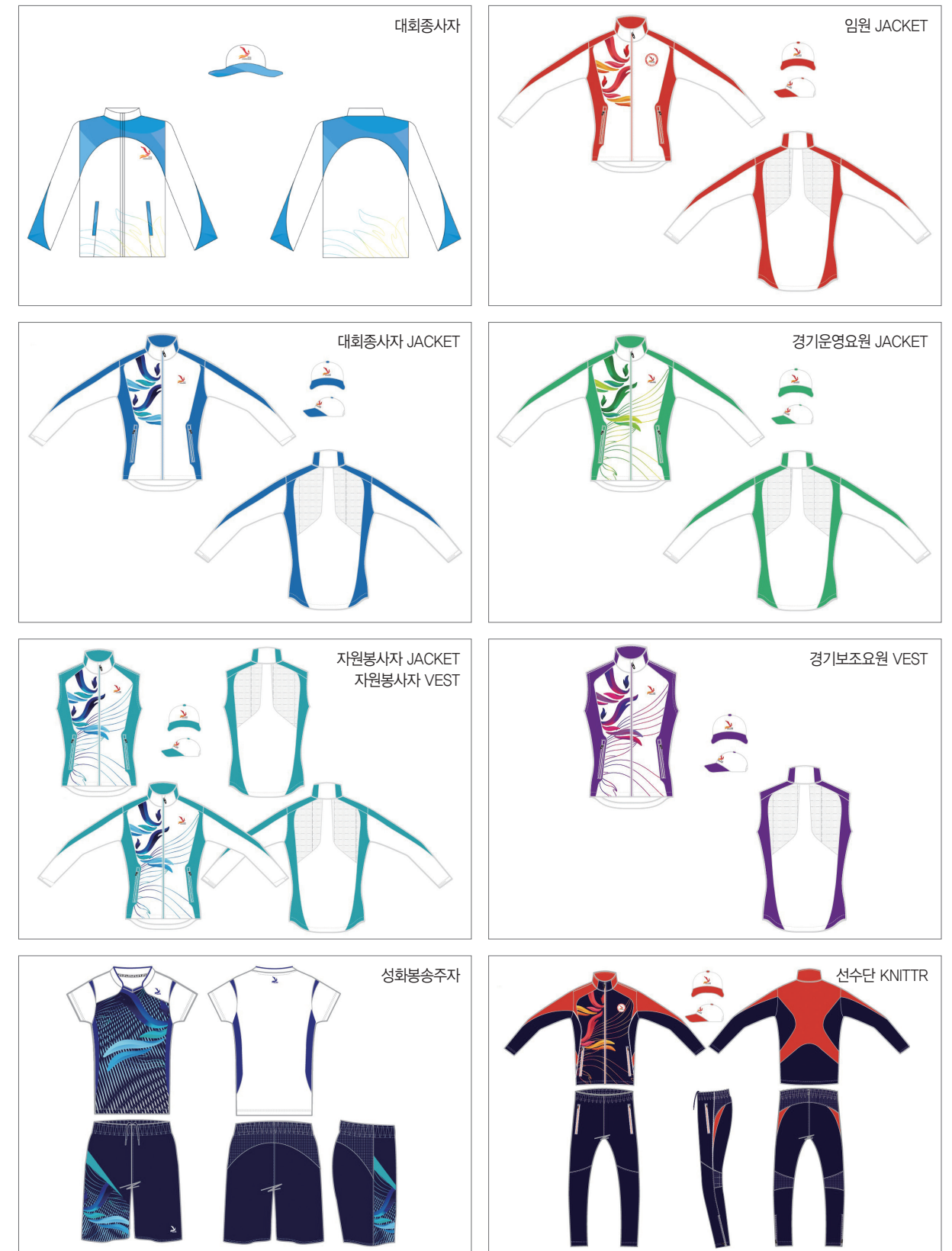
## 컨설팅 신청 및 주요 내용

아산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6년 제 9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시 충청남도선수단이 착용 할 유니폼(임원복, 선수단복, 경기운영요원복, 경기보조요원복, 자원봉사자복, 성화봉송주자복, 대회종사자복 등 총 7종)에 대한 시안 제시 컨설팅이 신청되었다. 디자인은 공식엠블럼에서 표현한 봉황의 모티브와 라인들로 구성하였고, 이는 풍요로운 충남을 상징한 것으로써, 선수단 각 각의 분야별 역할에 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 적용결과



## 시안제시



# DESIGN FOCUS

: 센터 정책연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3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34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36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37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38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39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2014년 3월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 개소와 동시에 센터의 기능 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기능 정립 이전에,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비전, 전략, 주요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센터, 도, 시·군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단편적이고 시각만족적인 1회성의 디자인 사업을 지양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공공디자인으로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상생, 가치혁신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10대 가치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 주요 과제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공공성을 지향하고 구현되는 디자인이 시·군 공공사업의 프로세스에 접목될 수 있도록 도, 시·군, 센터, 도민, 전문가의 협력적 연계방안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남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의 영역과 관련 주체의 역할도 제시하였다.

## 충남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의 기본구상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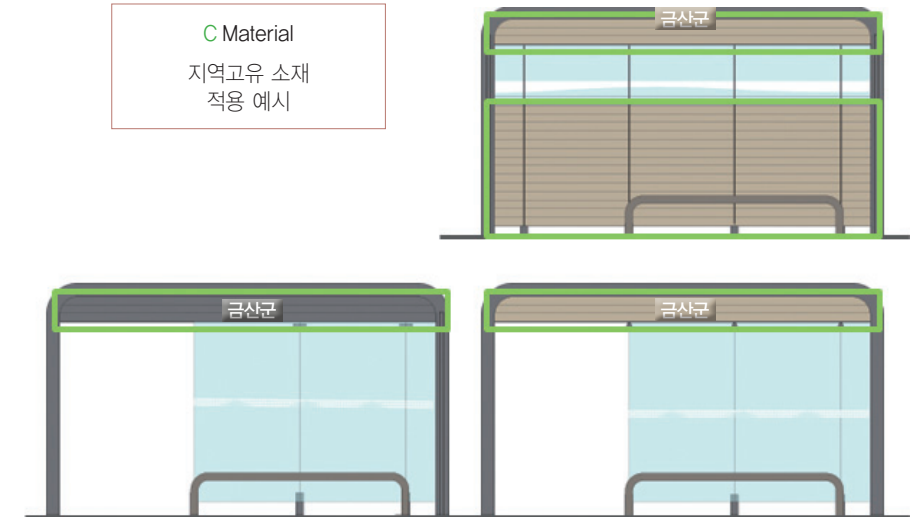
최근 공공디자인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략적 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에 수립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체계 구축을 통해 충남의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관련법제 및 계획 검토, 인문사회환경 등 현황분석을 통해 충남의 정체성을 반영한 광역차원의 디자인 특화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추진 확산을 위한 제도, 계획, 사업, 참여 평가 조직 시스템 및 시·군 추진 공모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 충남 디자인 특화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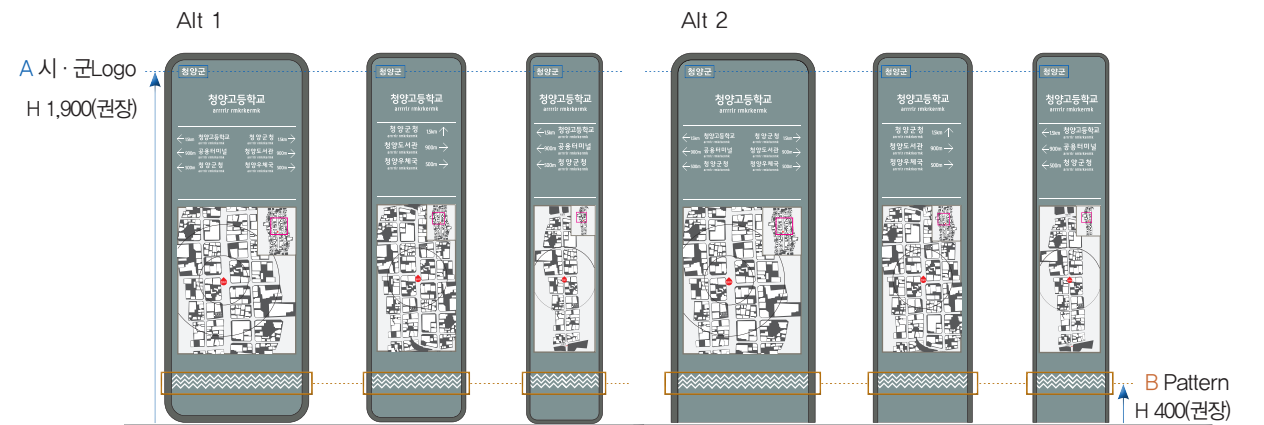
구분	내용
기본형태요소 도출	충남의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디자인 요소인 '여유로운 창조 문화지역'과 충남의 특징적인 주거지 형태인 4주식 주거지 형태를 반영하여 "동글고 모나지 않음"을 충남 공공디자인 기본형태로 제시
권역별 디자인 요소 도출	지역의 자율성 및 특색 유지를 위해 권역별 소재와 색채, 패턴 변형요소를 권역별 디자인 요소로 제시
설계 개념 제시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념 제시

### 권역별 디자인 특화개념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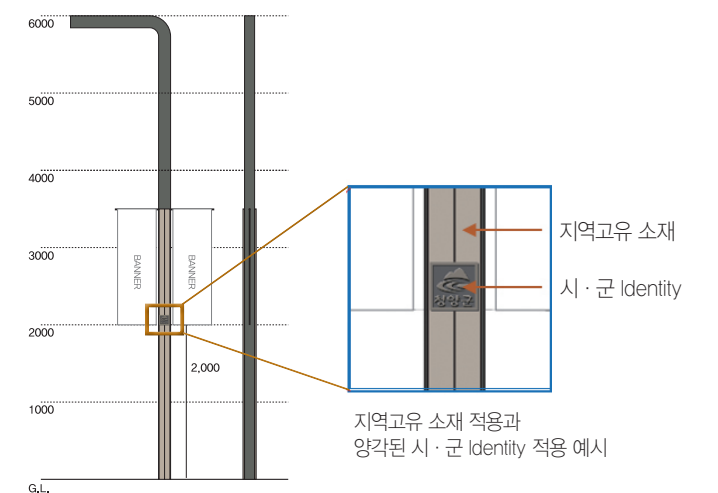
### ▶ 표지판

- A : 왼쪽상단, N9 / N10(권장)
- B : 가로하단, N9 / N10(권장)



### ▶ 가로등

- A 시·군Logo : 중앙 H 2,000, 구조물과 동일색 채의 입체형 또는 N9/N10(권장)
- B Banner : 세로중앙, 색채는 자유롭게 적용
- C 면적 요소 : 하단부 포인트적 요소, 지역 소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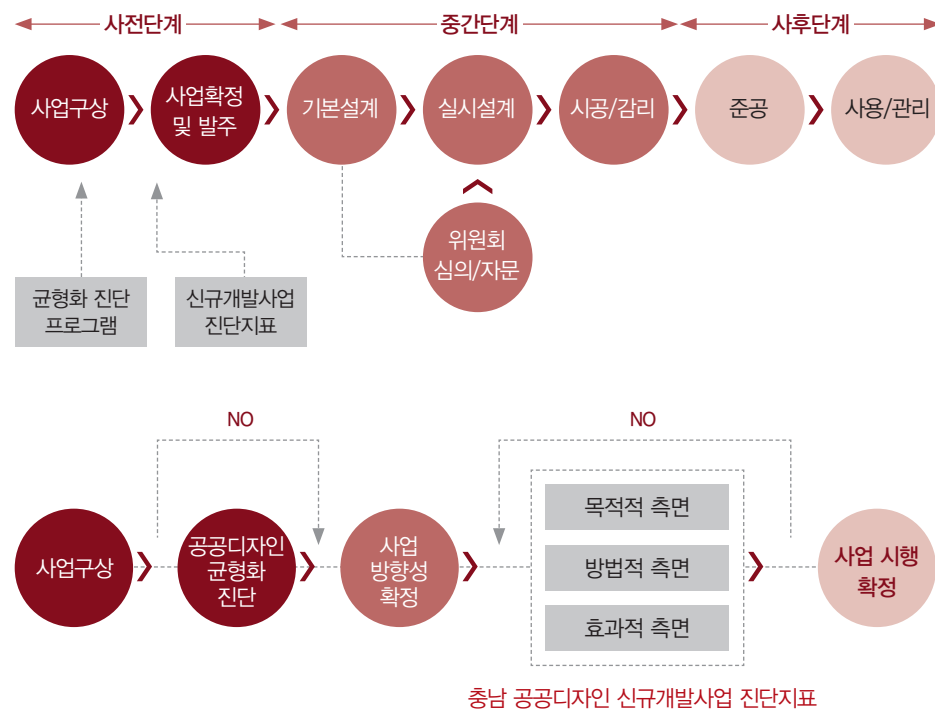
##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현재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환경은 관심도 및 재정여건, 시민 의식수준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한 상태로써, 현황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남의 디자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사전에 진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전진단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공공디자인 진단시스템 중 사업추진의 사전단계에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균형화 진단 프로그램'과 '신규개발사업 진단지표'를 제시하였다.

충남 공공디자인 사전진단지표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균형화 진단 프로그램	사업구상 초기단계에 충남도 또는 시·군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과의 정합성을 비교하여 신규개발사업의 방향성 진단,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 확정 및 재검토의 근거로 활용
신규개발사업 진단지표	사업의 목적, 방법, 효과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는데 활용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신규개발사업의 확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 충남 공공디자인 사전진단시스템 적용시기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남은 색채와 관련된 광역차원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건축물 색채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리가 어려우며 무질서한 색채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충남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색채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요소인 건축물에 착안하여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적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색채 용어 해설, 색채 사용 방법, 주제별 활용 방법 및 절차 등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활용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충남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권역 대표색채 제시 (상위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부권역 : 천안, 아산, 당진</li> <li>중부권역 : 예산, 청양, 홍성</li> <li>남부권역 : 금산, 계룡</li> <li>서해안권역 : 서산, 태안, 보령, 서천</li> <li>백제유교문화권역 : 공주, 부여, 논산</li> </ul>
건축물 용도별 도시지역/비도시지역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 및 업무건축물, 공공건축물, 산업 및 기타 건축물</li> </ul>
활용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및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때 : 건축물 용도별 구분 ▶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구분 ▶ 권역별 구분</li> <li>최소한 준수해야 할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 건축물 용도별 구분 ▶ 권역별 색채는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활용</li> </ul>

###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적용배색 : 중부권역 대표색채 적용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 및 시·군에서 공공사업 추진 시, 범죄예방 설계에 반영할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사업 담당자나 설계자가 업무에 쉽게 이용하고, 지자체의 자문·심의·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유형별로 체크리스트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2015년 7월 제정되었다.

다양한 공공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경, 조명, 도로, 공원,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 및 일반건축물, 상점 및 준주택, 공공 및 방범시설물 등 공간 요소별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범죄예방 사업을 위해 커뮤니티 및 지역 안전활동 강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사업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시·군 범죄예방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업 유형 및 기본적인 절차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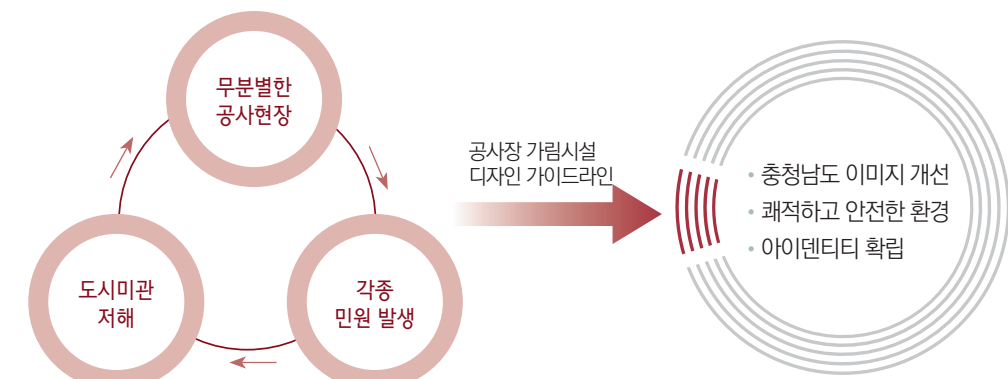
### 범죄예방 사업 절차

1. 대상지 선정	대상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예방 관심 지역</li> <li>범죄피해 발생 지역(경찰청 협조)</li> <li>현장조사 및 평가</li> </ul>
2. 대상지 분석	대상지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주민의 범죄 불안요소 파악</li> <li>유해환경 및 요소 현장조사 (전문가 조사)</li> <li>최근 범죄발생 현황 조사 (경찰 협조)</li> </ul>
	대상지 현황 도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 두려움 지도 작성</li> <li>주변 유해환경 현황지도 작성</li> </ul>
	이해 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 주민센터, 경찰 지구대, 지역주민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li> <li>이해관계자 의견 수렴</li> </ul>
3. 설계 결정	설계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조사 내용을 반영한 계획 수립</li> </ul>
	설계안 협의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지역단체, 경찰, 담당 공무원 협의</li> <li>사업내용 및 사업비 선정</li> </ul>
4. 사업 실행 및 평가	시공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안 시공</li> <li>계획안 내 프로그램 실행</li> </ul>
	유지관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예방환경 만족도 조사</li> <li>지속적인 환경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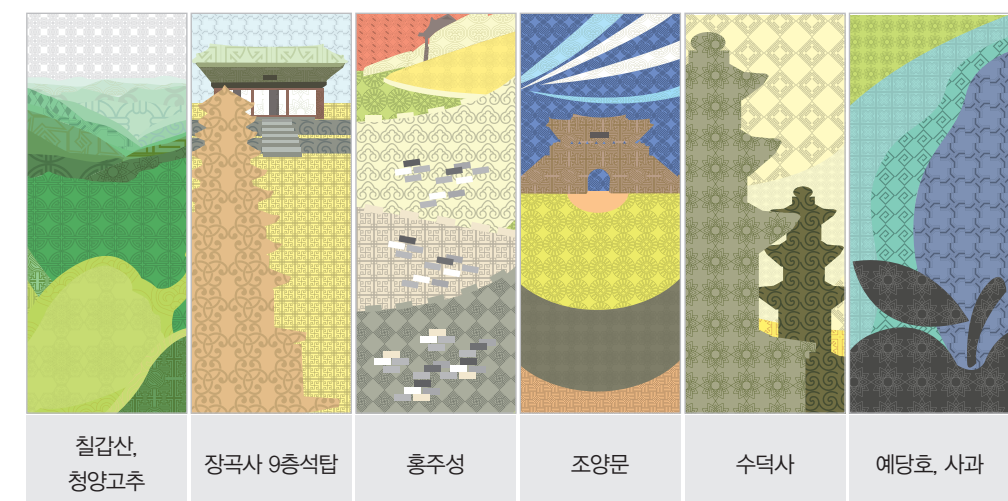
## 충청남도 공시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 및 배경

개발 등의 건축 행위 시 공사현장과 자재 등을 가리고 분진 등의 확산을 저감하고자 설치되는 공사용 가림시설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가설울타리의 규격과 패널의 부착위치, 그리고 그래픽 적용 방법 등 가설울타리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선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픽 사용 및 연출 방법 안내를 통해 시·군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



▶ 중부권 그래픽 예시



# DESIGN TEAM

: 적용사례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 임종구 주무관 42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맞춤형 복지 실현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홍성군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팀\_ 임종구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14% 미만일 경우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20% 미만일 때를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홍성군은 65세 노인 인구가 21.7%(2016년 6월 통계 기준)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배려한 다양한 공공정책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는 미비한 실정이다.

홍성군 공공디자인팀은 올해 3월에 지역주민과 '홍성 사랑 토크'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국민 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한 307개 과제 가운데 최종 발표 및 심사(최종 13개 과제 선정)를 통해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노인안전 컬러디자인'이란 주제가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원과 국민 디자인단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란?

인간이 색을 인식하는 방법은 개개인이 가진 유전자의 특성이나 다양한 눈의 질환(노화)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축물, 시설물, 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한 컬러 디자인이 필요하다. 아직 컬러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미비한 국내 실정에서 국내 최초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공공디자인 서비스 향상 및 선진행정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화과제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사업'은 일반인보다 색역이 좁고 색각이 취약한 노인들을 배려한 맞춤형 컬러 컨설팅 및 색채 설계를 적용하여 노인복지시설, 노인 교통차량 등에 안전과 편의를 향상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컬러 유니버설 가이드 저작자인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삼화페인트공업(주)과 '노인안전 컬러디자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 전시, 안내 표지판, 인쇄물 등 문화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정책개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사진출처

『Way of the sign III VOL. 1』 ARTPOWER, 2013, P 20, 109, 176.

『Way of the sign III VOL. 2』 ARTPOWER, 2013, P 111.



# 국내 정책 · 제도 동향

## 중앙부처 정책 · 제도 동향 46

- 건축 및 도시
- 경관 및 공공공간
- 마을만들기
- 공공시설물 및 매체

## 충청남도 및 15개 시 · 군 정책 · 제도 동향 52

- 건축 및 도시
- 경관 및 공공공간
- 마을만들기
- 공공시설물 및 매체

## 중앙부처 정책 · 제도 동향

### 건축 및 도시

####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2016. 07. 18.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분야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07.09.)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하였다. 선도사업의 선정기준 · 절차 등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지난 7월 15일 전국 시 · 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초 LH,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16.01.19. 공포, '16.07.20. 시행)에 따라,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07. 기준)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노후 건축물 재건축,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2016. 07. 19.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분야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 4일)

하였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②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④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 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 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등(8월 4일 시행), ⑥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⑦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⑧ 그 외 기타사항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0일부터 시행

2016. 07. 19.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분야 | 도시광역교통과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제12조), ②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제6조), ③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규정(제4조), ④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제12조의5), 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완화(별표1 비고 제3호), ⑥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 기계식 주차장 관리 등 그 밖의 개정사항이다. 이번에 개정 ·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 08. 09.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책과

지난 1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 ·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되었다(법률 제13805호, '16.01.19. 공포, '16.08.12. 시행). 이와 관련된 조문 정비와 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8월 9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등,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선, ④ 기타 개정사항 등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경관 및 공공공간

#### ■ 친환경에너지타운 20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2016. 06. 09.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과제인 친환경에너지타운 2016년 신규 사업지를 6곳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친환경에너지 신규 사업지는 강원 인제, 충북 음성, 충남 보령, 전북 완주, 제주 등 환경부 소관 5개 사업과 충남 서산 산업부 소관 1개 사업으로 소관부처 주관 하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 기본계획 준비기간을 거쳐 2~3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등 님비(NIMBY) 시설에 주민수익 개념을 가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기초시설(소각 · 매립 · 가축 분뇨 등)이나 유헤시설(폐교 등)에 기반해 각 사업지 실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선정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 · 수익모델을 다각화해 앞으로 민간 자율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 산업부,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출

2016. 06. 20.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아프리카 3개국 정상순방 성과 후

속조치를 위해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에티오피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현지실사단을 파견했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11%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가뭄이 심화되면서 전력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친환경 전력(태양광, 풍력)을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마을에 전기를 배분하는 마이크로 그리드가 결합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에티오피아의 전력난을 해결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전력 확보와 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력을 이용한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적인 농작물 경작과 식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에티오피아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지자체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2016. 06. 20.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 자발적인 동네경관 가꾸기를 장려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처음으로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관협정이란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제도이다. 5월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주민공동체의 참여 의지, 지자체의 지원여건, 경관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상지 주민의 경관협정 체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비로 총 2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관협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 동네를 가꾸려는 작은 생각들을 모아서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나갈 때 우리 동네를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대상

지자체명	사업명	사업비
세종특별자치시	철로변 숲길마을 경관협정	7천만원
전남 광양시	경관+문화+주민의 교집합 마을 공간 만들기 경관협정	〃
대전 광역시	신탄진 안심길 만들기 마중물 경관협정	6천만원

## 정부서울청사, 버려진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

2016. 07. 24. | 행정자치부 | 관리과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는 청사 내 버려진 자투리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만성적인 휴게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펼쳤다. 우선 청사 남북측 옥외계단 진입공간과 사무공간에 의자와 탁자를 배치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였고, 남측 옥내 계단에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하여 건강계단을 조성하였다. 한편 흡연장소처럼 인식되어 있던 옥상을 비흡연 휴게중심 공간과 옥상구조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화단에 잔디를 보식하여 자연의 느낌을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남녀 휴게실에 침대 및 집기를 확충, 교체하였고 미흡한 수유실은 임신부 전용 휴게공간으로 전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 옥상 화단 잔디 및 지피식물 보식 결과

## 노후화된 인천역,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

2016. 07. 28.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분야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에서 입안하여 결정을 신청(‘16.02.25.)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6.07.14.)를 거쳐, 7월 29일 결정 · 고시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

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 ·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지역이다. 인천역은 월미도와 내항,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최근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16.02.)에 따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을 견인할 앵커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역 부지는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복합역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천역이 복합 개발되면,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됨으로써, 인천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시설 및 지역 자산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열린 공간이자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4일 시행

2016. 08. 04.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지난 2월 3일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법률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구역,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공디자인구역의 참여 기준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이 밖에도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방법,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 문체부는 그간 모범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도모해 온 지자체, 그리고 디자인,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과 합심하여 우리 일상의 공간을 바꾸고, 공공영역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을만들기

### 도시재생사업 성공 위해 지역주민 · 지자체 · 정부가 삼위일체 되어야

2016. 06. 08.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분야 | 도시경제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06.)에 따라 인구감소, 주택 노후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 도심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 4월 충남 천안시 등 13곳이 처음으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4월에는 33곳이 사업지역으로 추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이중 천안시 도시재생 지역은 천안역과 동남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천안 구도심으로서 한때 ‘명동거리’로 불릴 만큼 사람들이 붐비는 중심지였으나, 천안시청이 2005년 서북구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빈 상가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2014년 4월 천안시를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총 2,70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을 정비 · 개발하고, 문화 · 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보행환경개선, 공공시설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환경을 정비 · 개선하는 한편, 선도 지역 변경 5km 이내에 단국대, 백석대 등 6개 대학(5만 명)이 위치하는 대학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 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젊은 인력의 창업 지원 등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 국민이 직접 마을공동체 정원 만든다

2016. 06. 12. |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행정자치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협업해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사업을 국민디자인 과제로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육성 및 주민 행복도 향상으로 주민들의 협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 공간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이다.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단체 꽃밭, 가족 꽃밭, 꽃길을 조성해 공동의 영농활동을 통한 지역 중심 공동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주로 주거지역에 가깝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공유지가 대상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정원은 총 11개이며, 21억원이 투입되고 부지면적 1만㎡ 미만(3,025평)과 1만㎡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수요에 따라 조성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사업 추진방식도 전국 공모를 통해 주민조직인 주민 자치회, 마을 만들기 주체, 새마을 협의회 등이

주도해 사업 지역과 아이템을 발굴 · 제안하며, 6월 중 공모를 거쳐 8월 경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정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지로 3개소 선정

2016. 07. 14. | 행정자치부 | 지역경제과

행정자치부는 구도심의 쇠퇴한 영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광주 음악의 거리’, 평창의 ‘양떼 동화마을’, 순천의 ‘변화 위복 순천 대학로’ 3곳을 ‘골목경제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광주 음악의 거리’는 음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관련 디자인을 개선해 ‘음악의 거리’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며, ‘양떼 동화마을’은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인근 마을에 올림픽 연계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변화 위복 순천 대학로’ 사업은 청춘길 조성, 스토리 간판정비, 상설공연장 조성 등 문화와 젊음이 넘치는 밝은 대학로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곳에는 3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시설 개선, 테마거리 조성, 먹거리 확충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개 지역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활성화 필요성, 주민참여도, 성과 창출 효과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완료 후 5년간 임대료 동결을 협약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 주민이 직접 참여한 ‘마을공동체 정원’

2016. 07. 18. | 행정자치부 | 지역경제과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정원도 가꾸면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형성 기여사업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포항을 비롯한 8개소를 선정, 조성 중에 있다. 포항 마을공동체 정원은 약 2만㎡의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정원을 구상하고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지역주민 12명이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마을공동체 정원을 디자인하고 설계했다. 주요 시설로는 ① 분양반은 주민들이 함께 일구는 ‘행복텃밭’, ② 유채, 청보리, 메밀 등을 식재하는 ‘공동체 꽃밭’, ③ 지역 내



20여개 기업 및 단체가 가꾸는 ‘테마정원’, ④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 마당’을 갖추며, 정원 원예교실, 영농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 ‘달동네 · 쪽방촌 도시재생’ 탄력받는다

2016. 07. 18. |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분야 | 도시환경과, 도시재생과

도시 내 쪽방촌 · 달동네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민간 사회공헌활동의 참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8일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지구에서 민간 후원을 위한 협약식과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다. 현재 전국의 52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새뜰마을에는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지원사업에 협력한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기금을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 지원대상의 선정 ·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작년부터 사업 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올해부터 가로환경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노후 · 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등이 본격 착수된다. 정부와 세종시는 2018년까지 총 72억 5천만원(국비 44억 9천만원, 지방비 27억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나 난방 공급, 집수리, 소방도로 확충 및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시설물 및 매체

### ■ 철도역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디자인으로 예방한다

2016. 06. 15. | 국토교통부 | 도로철도 | 철도시설안전과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넘어짐, 틈새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

컬레이터에 설치되는 안전표지 디자인을 안전친화형으로 개발하고 시범 설치했다. 최근 5년간 철도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연평균 430여 건으로, 이 중 29%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시설의 결함이나 고장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 발생이 잦은 행선역과 광주송정역 에스컬레이터에 시범 설치했다. 안전친화형으로 디자인 된 안전표지는 기존 안전표지 보다 시인성이 뛰어나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위치별로 ① (진입부) 운행 방향, 유모차 진입금지, ② (탑승부) 걷거나 뛰지 않기, 손잡이 잡기, ③ (종착부) 하차 주의 등 이용자 안전수칙을 표시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 설치는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15.08.06.)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 안전친화형 에스컬레이터 안전표지 적용도

<p>↑ 올라가는 곳 ↑</p> <p>↓ 내려오는 곳 ↓</p> <p>↑ 올라가는 곳 ↑</p> <p>↓ 내려오는 곳 ↓</p> <p>↑ 올라가는 곳 ↑</p> <p>↓ 내려오는 곳 ↓</p>	<p>노란 안전선 안에 서세요</p> <p>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세요</p>	<p>내물매 조심하세요</p> <p>안전을 위해 전전역 이용하세요</p>
<p>운행방향 안전표지</p> <p>시인성 향상</p> <p>비상정지 버튼</p>	<p>탑승주의 안전표지</p> <p>스텝정면 픽토그램</p>	<p>하차주의 안전표지</p> <p>FRONT BACK</p> <p>안전을 위해 서서 가세요</p>
<p>비상정지버튼</p>	<p>스텝정면 픽토그램</p>	<p>보행금지 신호등표지</p>

▲ 측면부착 안전표지



### ■ 지역주민이 마을 불법광고물 직접 몰아낸다

2016. 06. 16. |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행정자치부는 6월 16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200여명과 함께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운동 등 시민단체 8개 기관 및 중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한목소리로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외쳤다. 이번 결의문에는 ① 불법광고물 없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 ② 광고물 설치 시 적법한 절차 안내에 최선, ③ 생활주변 불법광고물의 자율적인 정비에 매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퍼포먼스나 행사 참여자를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줄이고 바람직한 광고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전국 226개 시, 군 · 구에서도 이번 행사에 맞춰 민관합동 캠페인을 동시 실시하도록 해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불법광고물 근절 운동이 민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2016. 07. 04.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 ·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 규정과 자율표시 구역 지정 · 운영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적용, ② 광고물의 안전 관리 강화 : 입체형 간판의 안전점검 대상 적용 (4층 이상 높이에 해당) 및 매년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충청남도 및 15개 시 · 군 정책 · 제도 동향

## 건축 및 도시

- 공주시, 소규모 건축물 집수리 재능기부로 이웃 사랑 만개  
2016. 06. 03. | 공주시



공주시가 소규모 건축물 집수리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시는 5월 27일 충남 건축사회 공주시 지회 회원, 신흥전기, 좋은 건축 자원봉사자, 허가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시 중동 기초생활수급자인 심 모씨 집에서 집수리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 나선 이들은 낡은 전선과 전등을 교체하고 곰팡이 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지붕 처마 틈새를 메워 주는 활동을 펼쳤다. 공주시는 “이번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주시 소규모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공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한다  
2016. 06. 03. | 공주시

공주시가 범죄 없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②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③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규정, ④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사업, ⑤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⑥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연내에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경관 및 공공공간

-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생태습지로 해결  
2016. 06. 07. | 충청남도 |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충남도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자연마을의 생활하수와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충남형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마을 도랑에 대한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랑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도내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자연마을로, 4월부터 공모를 통해 도내 4개 마을이 신청을 마쳤다. 도는 6월 초 시범사업 대상 자연마을 2곳을 선정

하고, 총 3억원을 투입해 하수차집관로 설치, 생태습지 조성 등 자연정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도랑살리기 추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별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수질개선 사업의 모델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 당진시, 학생 위한 녹색쉼터 명상숲 조성  
2016. 06. 07.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가 올해 합덕여자중고등학교와 북창초등학교 두 곳에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녹색쉼터인 명상숲을 조성했다. 명상숲은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여가 공간과 쉼터를 마련하는 등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숲으로, 올해는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들여 북창초등학교와 합덕여자중고교에 각각 400㎡와 650㎡의 유휴토지에 조팝나무와 산철쭉 등을 이용한 산책로를 만들고 배롱나무와 느티나무, 황금사철 등 관목을 식재해 명상숲을 조성했다. 한편 시는 올해 명상숲 외에도 석문면 해안로 가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장고항 1리 마을회관부터 용무치항까지 1.6km 구간에 겹벚나무 400주를 식재했으며, 정미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두리마을에는 나눔숲도 조성하고 있다. 시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마련된 명상숲이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명상숲 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부여군, 왕포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2016. 06. 09. | 부여군

부여군은 깨끗한 하천과 휴식공간을 지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왕포천 복원 사업에 총사업비 29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 2014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6월에 준공했다. 왕포천 일원은 하수종말 처리수, 농촌 하천의 비점오염원 등으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문제 됐던 금강 상류지역으로 오염물질을 생태적으로 정화하는 생태습지와 황토길, 지압길 등 군민 휴식공간으로 복원됐다. 이번 복원 사업에는 수질정화 및 생태계 복원 효과가 검증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시스템이 적용되어 한국 고유종의 복원과 수달, 원앙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왕포천 수질을 크게 개선했다. 시는 왕포천 생태습지를 주요 거점으로 금강 유역의 생태계와 서식처가 연계되고, 하천을 따라 이동하는 종의 서식처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궁남지, 백제 오천 결사대 충혼탑, 국립부여박물관 등과 함께 역사와 생태가 만나는 역사 · 문화체험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태안군,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쾌적하고 편리하게’  
2016. 06. 10. | 태안군

태안군은 지난 9일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 등 올해 총 22개 도시개발사업을 역점 추진해 군민 친화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시가지 내 교통량 분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총 80억원을 들여 태안을 17개 노선과 안면읍 3개 노선 등 총 20개 노선 4,324m의 도로를 개설한다. 특히, 태안을 공덕사와 한주아파트를 잇는 북부순환도로는 길이 658m, 폭 15m의 외곽도로로,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태안을 북부 지역의 교통 분산과 교통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및 통신케이블 등을 땅 속에 매립하는 태안을 중앙로 경관개선 사업은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관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태안읍 백화초등학교 옆에 동문공원을 조성기로 하고 총 1만 4,194㎡(약 4,300평) 면적에 각종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해 군민 건강 및 정서 함양에 앞장설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도심 기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 보령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 선정

2016. 06. 13.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시가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가축 분뇨 등 폐자원의 효율적인 에너지화로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주민 소득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됐다. 시는 주민 고정리 일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분뇨 공공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 슬러지(폐기물)를 화력발전소 원료로 활용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보령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온배수(열)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시설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축 분뇨 고품연료화 설비 구축 계획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응모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까지 가축 분뇨 고품연료화 시설 건립으로 국비 26억원을 포함한 5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온배수로 설치, 체육공원 조성 등 민간 자본 약 10억원을 투입해 주민편익시설, 문화관광시설도 갖추게 된다. 특히, 화력발전 미이용 열 온배수를 가축 분뇨 고품연료화 설비 주요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만들어진 고품연료는 중부발전으로 다시 판매하게 돼 연간 11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는 마을 주민 복리증진사업 및 학생 장학금 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직접 이익으로 비용 분배 지원할 수 있어 주민소득 창출에도 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여성이 안전한 충남'을 위해 함께 힘 모은다

2016. 06. 15. |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충남도 · 충남 도의회 · 충남경찰청 · 충남도교육청 등 충남 4개 기관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동네 안전, 거리 안전, 학교 안전을 목표로 자치행정, 치안,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 4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범죄 발

생 우려가 높은 치안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불편을 겪고 있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환경과 시설을 찾아 제거 ·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 · 자치단체 · 의회 · 교육청이 협업을 실시함으로써 실효성과 추진동력까지 동시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충남도는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한 공주 · 아산 · 당진 · 예산 등 4개 시 · 군 중 한 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2월까지 4억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은 범죄로부터 노출된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 당진시, 버그내 순례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장상 선정

2016. 06. 15. | 당진시 | 홍보팀



국토교통부와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국토 · 도시계획 · 경관 · 공공디자인 · 건축 · 토목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당진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에 선정됐다. 이번 디자인대전에서 공원 · 산림 · 하천 부문에 '만남과 평화의 거리 버그내 순례길'을 출품하였고, 솔뫼성지와 버그내장터, 합덕제, 신리성지를 연결하는 버그내 순례길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잘 살려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버그내 순례길에는 농촌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정체성을 잘 녹여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점도 수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버그내 순례길은 당진시 우강면에 위치한 솔뫼성지에서 시작해 버그내 장터와 합덕제, 합덕성당 등을 경유해 신리성지까지 이어지는 13.4km의 순례길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 순례길을 중심으로 버그내 장터길 만들기 사업과 교황의 거리 상징 게이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버그내 순례길과 해미읍성까지 연결하는 순례길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 ■ 천안시, 원성천 산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016. 06. 16. | 천안시 | 원성1동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주관 우리 동네 행복길 '동행 PLUS' 사업으로 원성1동 동부교 지하도 벽면에 벽화작업을 실시해 천안시민이 즐겨 찾는 원성천 산책로가 더욱 밝고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9세~19세 청소년 20여 명과 관계자들은 매주 토요일 13:00~17:00까지 지하도 벽면에 바탕색을 칠하고, 도안, 채색작업을 실시하며, 실을 이용하는 스트링 아트를 병행하여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직접 공예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원동교 지하도 단장에 이어, 이번 동부교 지하도 벽화사업으로 걷고 싶은 원성천 산책로[Healing Course]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성1동은 원성천 산책로 구간 내 벽화 및 파손된 데크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참깨 등 토종어류 방사, 코스모스 길 조성 등 도심 속 휴식 공간, 생태 하천 원성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단장한 '벽과 벽 사이'

2016. 06. 21. | 공주시

공주시가 웅진로 건물 사이에 있는 녹슬고 지저분한 쪽문들을 교체해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시켰다. '공주다운 웅진로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 상가변영회에서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중동초등학교 앞 건물들 사이 쪽문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비 사업과는 달리, 단순히 구조물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설치한 쪽문에 공주를 알리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등을 그려 넣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화분을 쪽문 주위에 설치해 웅진로를 더욱 생기있게 만들었다. 새로 단장된 쪽문은 상가변영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화분들의 생육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 공주시, 대학문화 거리 조성 추진

2016. 06. 22. | 공주시

공주시가 신관동 일원에 대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주시 번영 1 · 2 · 3로 일대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빈번하고 보행공간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노후된 공공 가로 대학로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공연 · 휴게의 다기능 열린 공간 조성 등 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보행권 확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함께 특성화된 대학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도폭 축소, 일방통행 운영,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등 무분별한 주차로 뒤덮인 거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중이며, 주차공간 확보,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 등 주차환경 개선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지역의 요구사항 수요 파악을 위해 대학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천안 성정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장려상 수상

2016. 06. 28. | 천안시 | 건설도로과

천안시 성정 소하천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2016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최우수 결과 장려상을 수상해 2017년 국비 5억원의 인센티브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52개 소하천이 참가했으며 서면, 현장 및 최종 심사의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성정 소하천은 상류부 복개, 유지용수 부족, 생활폐수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어 상류부 복개구간을 철거하였다. 또한, 갈수기 건천화 방지를 위해 하천수를 재이용하여 유지용수를 공급토록 했고, 생태 여울 4개소를 설치하여 수질이 개선된 것이 공로로 인정 받았다.

## ■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2016. 07. 13. | 공주시

공주시가 지난해 추진한 복지시설 나눔숲 공모사업에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옥상녹화를 신청해 선정됐으며, 지난 6월 조성을 완료해 7월 13일 완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나눔숲은 소형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들과 초화류를

식재해 녹색의 공간을 조성하고 디딤 잔디와 데크를 시공해 이용객들의 편의는 물론 수목관리를 위한 자동관수시설을 설치해 관리의 편의성도 도모했다. 시는 “나눔숲이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정서와 심신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당진시, 계림공원 개발 본격 추진 2016. 07. 22.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수청동 일원 33만 3,859㎡ 규모의 계림공원을 환경훼손과 난개발, 특혜 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 하기 위해 공모에 의한 방식을 채택해 무분별한 도시공원 훼손을 막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 시설로 오는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시에서 계림공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공모 기준안을 작성하게 된다. 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 속에서 문화, 여가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계림공원을 도심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도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 천안시, 시청 트릭아트홀 활성화를 위한 LED 장미정원 조성 2016. 08. 11. | 천안시 | 공보관

천안시는 시청사 트릭아트홀 앞 광장 화단에 LED 장미조명을 설치했다. 시는 천안시민과 시청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지난해 청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트릭아트홀을 개관한 바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일몰 후에도 트릭

아트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300여 송이의 LED 장미를 심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감성적인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LED 장미를 추가로 심고 포토존 등 부대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며, 새롭게 조성한 LED 장미정원이 트릭아트홀과 함께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쉼터, 낭만적인 야간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천안시, 2016 명품가로숲길 조성 2016. 08. 17. | 천안시 | 공원관리과

천안시는 기존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보도블록을 철거한 후 0.8~1.2m 폭으로 각종 야생화, 관목류 등 다양한 식물을 심어 다층식(지파+관목+교목) 도시숲으로 만드는 명품가로숲길(띠녹지)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산림청)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동서대로, 충무로, 번영로, 불당대로, 천안대로 등 4.8km에 9억여원을 들여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하반기 서부대로, 버들로에 띠녹지 조성공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도시 사막화 방지 및 건전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과 홍수 경감 등 재해예방, 무단횡단 예방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만들기

### ■ 마을만들기 지원 협력 시스템 구축 ‘온 힘’ 2016. 06. 14. | 충청남도 |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

충남도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민간조직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① 마을사업 컨설팅, ② 주민역량강화 교육, ③ 현장 전문가 발굴 및 유치 지원, ④ 마을 소식지 발간 및 축제 등 현장밀착형 지원 등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⑤ ‘3농혁신 특화사업’ 등을 통해 천안 · 아산 · 논산 · 홍성 · 예산 · 보령 · 서천 · 청양 · 태안 등 도내 9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앞으로 지역 인재와 지원조직을 길러내고, 지역 특성에 부합된 민관협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 충남 대표 최우수 행복마을 4곳 뽑혔다 2016. 06. 24. | 충청남도 | 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

‘제3회 충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 분야에 논산시 청동1리(경관 · 환경 분야), 당진시 백석리(체험 · 소득 분야), 태안군 내2리(문화 · 복지 분야), 보령시 학성3리(농촌운동 분야), 시 · 군 분야(마을만들기)에 논산시, 읍 · 면 분야(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보령시 남포면이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1차 서면, 2차 현장평가를 통과한 마을과 시 · 군의 발전 계획 및 성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발된 분야별 최우수 마을 및 시 · 군, 읍 · 면은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펼쳐지는 ‘제3회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도를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입선할 경우 시상금과 정부포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마을 간 상호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자연마을 단위 정감 있는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 2016. 08. 18. | 충청남도 | 산림복지과 산림자원팀

충남도가 자연마을 단위의 정감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는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분산 추진하던 숲 가꾸기를 자연마을 단위 주변 산림에 집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경관조림, 숲 가꾸기, 기반 ·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데 총 사업비 66억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은 크게 3가지 형태이며 ① 마을경관 숲 조성사업(경관조림과 수종의 다양성 증진), ② 마을 숲 기반시설 지원(산림경영 · 관리와 생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③ 맞춤형 마을 환경 조성사업(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 환경 조성)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내년도 시범사업은 도내 각 시 · 군별 자연마을 단위 2곳씩 총 30곳 1,500ha로, 읍 · 면별로 대상지 조사를 거쳐 마을별 추진 위원회에서 산주 동의와 사업 계획서를 해당 시 · 군에 제출해 10월 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 계룡시, ‘청-노(靑-老) 공감 꽃길 조성 사업’ 추진 2016. 06. 15.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6월 11일과 6월 12일 이틀에 걸쳐 계룡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청-노(靑-老) 공감 꽃길 조성 사업’을 유동1리 등 5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청-노 공감 꽃길 조성 사업은 청소년과 마을 어르신을 연계하여 청소년에게는 공동체 의식을, 소외된 농촌마을 어르신에게는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농촌지역 재능 나눔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촌지역에 웃음과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 공공시설물 및 매체

### ■ 범죄 우려 지역 LED 등불로 ‘환하게’ 2016. 06. 13. | 충청남도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충남 도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거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충남사회복지협회에 의해 추진 중인 ‘취약 우범지역 LED 보안등 교체 사업’에 7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충남사회복지협회의 이번 후원금을 활용, 오는 12월까지 도내에서 범죄 우려가 높은 2~3개 마을을 선정해 일반 가로등 1,000개를 LED 보안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LED 보안등 교체 사업은 충남사회복지협회가 ‘밝고 안전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도 관계자는 가로등을 밝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할 경우 방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안등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천안시, 어린이공원 보행악자 위해 보도 턱 없앤다

2016. 06. 08. | 천안시 | 공원관리과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등 보행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턱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앞서 시는 시민단체인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와 협의하여 천안시 두정동 · 신방동 등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보행약자들이 진출입하기 어려웠던 공원을 대상으로 ① 공원과 진출입로 보도가 단절된 곳을 연결하는 보도 턱이 5cm 이상인 구간 개선, ② 점자블록 및 탄성 볼라드 설치, ③ 기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도구간 진출입로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완료 후에도 한뼘인권행동 등 NGO 단체와 동행하며 완료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진출입로 개선 사업 시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NGO 회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이번 공원 보도 턱 없애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공주시, 웅진로 간판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

2016. 06. 10. | 공주시

공주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품은 도시에 걸맞은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도심 아름다운 웅진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웅진로 간판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웅진로 일원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최대 4백만원(자부담 10%포함)까지 지원, 1개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씩을 설치 ·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간판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과 기본 디자인 유형을 설정한 후 사업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간판 디자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 되고 있는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특색 있는 간판 설치로 공주시만의 아름다운 문화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당진지역 도로 명칭 찾기 쉬워졌다

2016. 06. 13.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엔 도로 명칭을 표기한 관내 도로는 시 외곽을

순환하는 동부로와 남부로 등 16개 도로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 총 72개소의 도로명 표기를 완료했다. 이번 도로명 노면표시는 운전자의 차량 진행 방향을 고려해 도로의 시작점과 중간점에 표시해 운전자들이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위치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도로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 공주시, 밝고 쾌적한 버스 승강장 조성

2016. 06. 16. | 공주시



공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과 편의 제공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14개소와 태양광 조명등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승강장 24개소와 표지판 20개소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태양광 LED 조명등은 일몰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야간에 점등돼 승강장 표지판 식별 기능 강화는 물론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중 세종시와 시내버스 광역노선 무료 환승 협약을 추진하고 토 ·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특별교통수단 1대를 운행하는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밝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공주시, 주민 아이디어를 통한 톡톡 튀는 주차 입간판 설치

2016. 07. 25. | 공주시



공주시는 시는 지난해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15년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 고등학교 학생 연합회(AGOS)에서 제안한 주차 입간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주차 입간판은 기존의 단순하고 딱딱한 입간판이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그려 넣고 재미있는 글씨를 넣어 웅진로를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공주시 고등학교 학생 연합회(AGOS) 소속 학생들이 직접 상가의 임차인, 임대인 등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 ■ 천안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

2016. 07. 27. | 천안시 | 교통과

천안시가 도로에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수년간 연차사업 시행으로 인해 설치된 다양한 디자인의 교통시설물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천안시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 시 동일 장소에는 가급적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불법 주 · 정차 단속 강화, 예산낭비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도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천안시는 관내 도로에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로 인한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예산군, 옥외광고 우수기관 표창 수상

2016. 09. 08. | 예산군 | 도시재생과

예산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 인식 개선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한 간판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광고 협회와 협력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체제 마련 등 적극적인 광고물 행정 추진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덕산온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던 120여개의 대형 지주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간판디자인으로 거리를 탈바꿈시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판정비를 계속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